

음운론적 관점에서 본 국어의 새 로마자 표기법*

김 종 훈**

目 次

- I. 서 론
- II. 로마자 표기의 근본 원칙
- III. 현행 표기법과 새 표기법의 비교
- IV. 새 표기법에 대한 견해
- V. 결 론

I.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이제 곧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다 알고 있겠지만 2000년 2월 현재,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1984년 이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표기법을 만들기 위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1999)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에 근거하여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확정된 새 표기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로마자 표기의 근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1984년 공포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올해 고시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의 표기법을 비교해 본 후 개정 시안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필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 문제를 논제로 택한 것은 개정되는 새 표기법이 현행 표기법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알아보기 위한다. 하지만, 이 기회에 표기법 제정의 근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표기방식이 달라질

* 이 논문은 지난 2000년 2월 16일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 연구원이 주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에서 구두 토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영어교육과 교수

수 있다는 점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표기법은 외국인의 편의를 어느 정도 많이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 관광지로서 제주도 관련 지명이나 도로 표지판 등은 새 표기법에서는 어떻게 바뀌게 되며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II. 로마자 표기의 근본 원칙

한 언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배양서(1979), 김충배(1978) 등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둘째, 무엇 때문에 국어의 로마자를 표기하는가. 셋째,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한다고 할 때 국어의 음운 또는 음소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음성 또는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인가.

첫 번째 문제는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목적이 내국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어느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표기법은 내국인의 의식을 반영하게 되거나 외국인의 편의를 반영한 표기법으로 특징화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4년에 고시된 현행 표기법은 미국인 McCune & Reischauer(1939)가 발표한 표기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말을 못하거나 읽을 줄 모르는 외국인의 언어 의식을 많이 반영한 것이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새 표기법은 한국인의 정서를 많이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 외국인들에게 관광 안내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이 국제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교환하기 위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단순히 외국인들에게 길 안내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영어로 표기하는 것이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 보다 더 나을지 모른다. 우리가 로마자를 빌려 국어를 표기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로마자를 공용 표준 표기법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중한 정보를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이다. 어차피 국제적인 통신을 한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이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문자체계가 필요한 것이며 여기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로마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근본 의도는, 정국(1999:506)이 지적하듯이, 외국인 관광 안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귀중한 정보를 정리, 보관하거나 주고받기 위해서 더욱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은 국어의 음소와 음성 중에서 어느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국어의 글자를 로마자로 옮기는 것인가 아니면 국어의 소리를 로마자로 옮기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소위 轉字法(transliteration)인가, 아니면 轉寫法(transcription)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일단 원칙은 국어의 음운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며 국어의 음성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음운론적으로 말하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음소적 표기 내지는 형태 음소적 표기를 지키는 것이며 음성적 표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국어의 1 음소에 로마자 1 기호를 대응시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1948년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을 제정, 고시한 이래 1959년과 1984년에 각각 개정하여 사용해 왔으며, 2000년 2월 현재 네 번째 표기법 개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59년 문교부의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 철자에 로마자를 배당하는 전자법 방식이었으며, 1984년 문교부의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은 주로 우리말의 발음을 로마자화하는 전사법인데 반해, 2000년 문광부와 국립국어연구원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전자법 우선에 일부 전사법을 받아 들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1984년 현행 표기법과 2000년 새 표기법(개정 시안)을 비교, 검토하기로 하자.

III. 현행 표기법과 새 표기법의 비교

1. 현행 표기법의 체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제 1장 표기의 기본 원칙과 제 2장 표기 일람 및 제 3장은 표기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제주대학교 작문교재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글쓰기의 방법과 실제(1997:268-271)에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장은 표기의 기본 원칙을 밝힌 것으로, 첫째,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적기로 하며, 둘째,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셋째, 1개의 음운으로 1개의 기호를 표기하는데 원칙을 두고 있다.

현행 표기법 제 2장은 표기 일람으로 모음과 자음에 대한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우선 단모음과 중모음은 다음과 같이 적기로 하되,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 단모음 : ㅏ ㅓ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ㅑ ㅓ
a ǒ o u ũ I ae e oe

♣ 중모음 : ㅑ ㅓ ㅗ ㅛ ㅜ ㅠ ㅐ ㅑ ㅓ ㅑ ㅓ ㅑ ㅓ ㅑ ㅓ
ya yǒ yo yu yae ye ũi wa wo wae we wi

자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 파열음 :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ㅂ ㅃ ㅍ
k, g kk k' t, d tt t' p, b pp p'

♣ 파찰음 : ㅈ ㅊ ㅌ
ch, j tch ch'

♣ 마찰음 : ㅅ ㅆ ㅎ
s, sh ss h

♣ 비음 : ㅁ ㄴ ㅇ
m n ng

♣ 유음 : ㄹ
r, l

이때 주의할 점은 'ㄱ, ㄷ, ㅍ, ㅌ'이 모음과 모음 사이, 또는 'ㄴ, ㄹ, ㅁ, ㅇ'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소리날 때에는 각각 'g, d, b, j'로 적고 그 외에는 각각 'k, t, p, ch'로 적는다는 사실이다. 무성음이 유성음화 되는 경우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가구 kagu 바둑 paduk 갈비 kalbi 제주 Cheju 담배 tambae
받침 patch'im

게다가 'ㅅ'은 '시'의 경우에 'sh'로 그 외에는 's'로 적는다. 국어의 ㅅ은 원래 혀끝을 잇몸 가까이 대고 내는 소리인데 '이' 앞에서는 구개음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차이를 표기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시루 shiru 신안 Shinan 신촌 Shinch'on 부산 Pusan
상표 sangp'yo 황소 hwangso

아울러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적고, 자음 앞이나 낱말의 끝에서는 ‘l’로, ‘ㄹㄹ’은 ‘ll’로 적는다. 이를 테면 아래 표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 사랑 sarang 물건 mulgŏn 발 pal 진달래 chindallae

제 3장은 8개의 향으로 표기상의 유의점을 기술하고 있다. 제 1향은 음운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기로 하는 것으로, 첫째,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냇물 naenmul 부엌문 puŏngmun 낚는다 nangnŭnda
닫는다 tannŭnda 갇는다 kamnŭnda 진리 chilli 심리 shimni
압력 amnyŏk 독립 tongnip

둘째, ‘ㄴ, ㄹ’이 덧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 가랑잎 karangnip 낮일 nannil 담요 tamnyo 흠이불 honnibul
풀잎 pullip 물약 mullyak

셋째,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 굳이 kuji 해돋이 haedoji 같이 kach'i

넷째, ‘ㄱ, ㄷ, ㅂ, ㅈ’이 ‘ㅎ’과 어울려 나는 경우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국화 kuk'wa 낳다 nat'a 밟히다 palp'ida 맞히다 mach'ida

다만, 형태소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된소리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 장기(長技) changki 사건 sakŏn 냇가 naetka 작두 chaktu
신다 shinta 산불 sanpul

제2향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나,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는 ‘-’ (짧은 줄표)를 써서 따로 적도록 한 것이다.

♣ 장이 chang-i 잔기(殘期) chan-gi 물가에 mulka-e 종로에 Chongno-e

단, 인명과 행정구역 단위명 표기에서 ‘-’ (짧은 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동화

작용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김복남 Kim Pok-nam 사북면 Sabuk-myŏn

제3항은 고유명사에 관한 것으로 첫소리를 대문자로 적으면 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인천 Inch'ŏn 대구 Taegu 세종 Sejong

제4항은 인명에 관한 것이다.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되 띄어 쓰고, 이름 사이에는 '-' (짧은 줄표)를 넣는다. 다만, 한자식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를 생략할 수 있다. 보기를 들면 아래와 같다.

♣ 김정호 Kim Chŏng-ho 남궁동자 Namgung Tong-cha
손미희자 Son Mi-hŭi-cha 정마리아 Chŏng Maria 한하나 Han Hana

제5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hi, gun, gu, up, my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 (짧은 줄표)를 넣는다는 규정이다.

♣ 충청북도 Ch'ungch'ŏngbuk-do 제주도 Cheju-do
의정부시 Ŭiŏngbu-shi 파주군 P'aju-gun 도봉구 Tobong-gu
신창읍 Shinch'ang-up 주내면 Chunaemyŏ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Tangsan-dong 봉천2동 Pongch'ŏn 2-dong
종로2가 Chongno 2-ga 퇴계로5가 T'oegyero 5-ga

다만, 특별시, 직할시, 시, 군, 읍 등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략할 수 있다.

♣ 부산직할시 Pusan 신창읍 Shinch'ang

제6항은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의 표기 규정으로 '-' 없이 붙여 쓰기로 한 것이다.

♣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Kŭmgang 독도 Tokdo
해운대 Haeundae 경복궁 Kyongbŏkkung 도산서원 Tosansŏwon
불국사 Pulguksa 현충사 Hyŏnch'ungsa 독립문 Tongnimmun

오죽헌 Ojuk'on 축석루 Ch'oksǒngnu 종묘 Chongmyo
 다보탑 Tabot'ap 무량수전 Muryangsuǒn 연화교 Yǒnhwagyo
 극락전 Kǔngnakchǒn 석굴암 Sǒkkuram 안압지 Anapchi
 남한산성 Namhansansǒng

물론 5음절 이상의 비교적 긴 낱말의 경우에는 낱말 사이에 '-'를 쓸 수 있다.

♣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 Kǔmdong-mirūkposal-pan-gasang

제7항은 고유 명사 표기에 관한 것이다. 국제 관계 및 종래의 관습적 표기를 고려해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는 것이 허용된다.

♣ 서울 Seoul 이순신 Yi Sun-shin 이승만 Syngman Rhee
 연세 Yonsei 이화 Ewha

제8항은 인쇄나 타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의미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ǒ, ǔ, yo, ui 등의 '˘' (반달표)와 k', t', p', ch'들의 '˘' (어긋점)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2. 새 표기법의 체계

제 1장 표기의 기본 원칙은 현행 표기법과 똑같기 때문에 제 2장 표기 일람부터 제시한다. 새 표기법의 내용을 있는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연구원(1999:1-6)에서 펴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관련 자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제 1항은 모음의 표기로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ㅙ	ㅚ	ㅜ	ㅣ
a	eo	o	u	eu	i	ae	e	oe	wi

♣ 이중 모음

ㅑ	ㅓ	ㅖ	ㅠ	ㅙ	ㅚ	ㅜ	ㅖ	ㅜ	ㅚ	ㅣ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음을 표기하기 위해 새 표기법에서는 현행 표기법에서와는 달리 모음 위의 반달표(breve)를 빼고, ㄱ을 eo로, ㅡ를 eu로 개정하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 2항은 자음에 대한 표기로 다음과 같이 적으면 된다.

♣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 비음

ㄴ	ㅁ
n	m

♣ 유음

ㄹ
l

자음 표기 방법에서 현행 표기법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자음 위의 어긋점(apostrophe)을 삭제한데 있다. 예컨대, 국어의 'ㄱ, ㅌ, ㅍ, ㅊ'을 'k', 't', 'p', 'ch'로 표기하지 않고, k, t, p, ch로 적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행 표기법과는 달리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적고,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기로 한 것도 변화되는 내용이다. 보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태백 Taebaek 갑곶 Gapgot 한밭 Hanbat

물론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ㄹㄹ'은 'll'로 적는다. 다음의 예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대관령 Daegwallyeong

새 표기법의 제 3장은 표기상의 유의점을 설명한 것으로 모두 7개의 항으로 되어 있다. 제 1항은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기로 한 것으로, 첫째, 자음 사이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쓰기로 한다.

♣ 약목 Yangmok 만머느리 manmyeoneuri 읍내 eumnae
 신문로 Sinmunno 설날 seollal 종로 Jongno 왕십리 Wangsimni
 신라 Silla

둘째, ‘ㄴ, ㄹ’이 덧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기로 한다.

♣ 꽃잎 kkonnip 담요 damnyo 들일 deullil 물약 mullyak

셋째,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해돋이 haedoji 같이 gachi 묻히다 muchida

넷째, ‘ㄱ, ㄷ, ㅂ, ㅈ’이 ‘ㅎ’과 어울려 나는 경우는 다음의 예처럼 표기한다.

♣ 묵호 Muko 놓다 nota 집현전 Jipyeonjeon 맞히다 machida

그러나 단어 내부에서의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가령 아래 단어들은 경음화가 일어난다 해도 변화의 결과대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석굴암 Seokguram
팔당 Paldang 울산 Ulsan 물고기 mulgogi 셋별 saetbyeol
산새 sansae

또한 인명 표기에서 한자어 이름의 사이와, 행정 구역 표기에서 앞말과 단위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도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한복남 Han Bok-nam 홍경래 Hong Gyeong-rae
사북면 Sabuk-myeon 구산리 Gusan-ri

제 2항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언급이다. 다음의 두 단어 표기가 바로 그것이다.

♣ 중앙 Jung-ang 준강 Jun-gang

제 3항은 고유명사에 관한 것으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 조항이다. 다음의 예에 잘 나타나 있다.

♣ 부산 Busan 세종 Sejong 삼국사기 Samguksagi

제 4항은 인명 표기에 관한 것으로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는 것이다. 한자어 이름일 경우에는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과 ㄷ도 허용한다.

	ㄱ	ㄴ	ㄷ
♣ 윤숙영	Yun Suk-yeong	Yun Sukyeong	Yun Suk Yeong
남성렬	Nam Seong-ryeol	Nam Seongryeol	Nam Seong Ryeol

제 5항은 행정 구역 단위에 관한 표기로서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기로 한 것이다. 보기를 들기로 하자.

- ♣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 파주군 Pa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 주내면 Junae-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g-dong
- 봉천 1동 Bongcheon 1(il)-dong 종로 2가 Jongno 2(i)-ga
-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물론,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읍 등의 행정 구역 단위명은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순창읍은 각각 Incheon과 Sunchang으로 표기한다.

제 6항은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 없이 붙여 쓴다는 것이다.

- ♣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 해운대 Haeundae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 돈의문 Donuimmu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 불국사 Bulguksa 회방사 Hibangsa 현충사 Hyeonchungsa
-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eon 축석루 Chokseongnu
-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광희문 Gwanghimun

다만, 한글 표기에서 띄어 쓰는 말은 띄어 쓰는 단위마다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 Geumdong-mireukbosal-bangasang
- 도산 서원 Dosan-seowon
- 성덕 대왕 신종 Seongdeok-daewang-sinjong

제 7항은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여권이나 신용카드 등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을 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회사들도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오래 사용해온 회사명을 바꾸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IV. 새 표기법에 대한 견해

새 표기법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기 전에, 먼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이번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다는 뜻에서 1984년 이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개정 시안의 표기법을 비교하여 제주도의 행정 구역과 문화재명, 그리고 자연 지물명을 표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시안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Cheju-do(제주도)는 Jeju-do로, Sŏgwip'o(서귀포)는 Seogwipo로, P'yosŏn(표선)은 Pyoseon으로, Kwandŏkjŏng(관덕정)은 Gwandeokjeong으로, Tolharŭbang(돌하르방)은 Dolhareubang으로, Paengnokdam(백록담)은 Baengnokdam으로, Yŏngsilgiam(영실기암)은 Yeongsilgiam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위 예에서 보듯이 개정 시안은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쓰기에 매우 불편한 모음 위의 반달표를 없애고, ‘어’를 ǝ가 아닌 eo로, ‘으’를 ǔ에서 eu로 표기하고 있으며, 자음의 경우 ‘ㄱ, ㅌ, ㅍ, ㅊ’을 k', t', p', ch'에서 어긋점을 빼고 k, t, p, ch로 적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ㄱ, ㄷ, ㅂ’도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구분하여 k, t, p와 g, d, b로 적던 것을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g, d, b로 표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취지의 개정 시안이 현행 표기법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지만, 새 표기법이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더 많은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1. 표기원칙과 관련된 문제

근본적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의 음운 또는 음소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며, 국어의 음성 또는 소리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 시안은 음소 표기 원칙을 존중하여 국어의 1 음운에 로마자 1

기호의 표기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개정 시안은 한글 맞춤법의 형태음소적 성격 때문에 우리말에서 불가피하게 소리나는 대로 쓰지 못하는 단어들, 이를테면 '읍내'와 '한라산'의 로마자 표기를 소리나는 대로 '음내'와 '할라산'인 eumnae와 Hallasan으로 표기하고 있다. 소위 전사법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개정 시안은 1 음운 1 기호 표기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가령 자음 중에서 'ㄱ, ㄷ, ㅂ'을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표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ㄹ'을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도록 한 것은 1 음운 1 기호 표기가 아니라 1 음운 2 기호 표기가 되고 있다. 이 표기법대로라면 '상속', '상속인'은 sangsok과 sangsogin으로 적게 되어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서로 다르게 표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상속'과 '상속인'에서 '속'자의 ㄱ 표시를 한번은 k로, 또 한번은 g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두 단어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특히, 일반 사람들로서는 'ㄱ, ㄷ, ㅂ'이 어느 환경에 있건 유무성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는 'ㄱ, ㄷ, ㅂ'이 어느 위치에 일어나건 g, d, b로 적는 방법이 1 음운 1 기호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와 동일하게 'ㄹ'도 'l' 또는 'r' 하나로 적는 것이 표기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독립문'은 얼핏 보기에 Doglibmun으로 표기되어 외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개해방(doglib)이나 개갈비(dogrib)를 연상케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지 모르지만, '독립문'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동님문'의 로마자 표기인 Dongnimmun으로 쓰게 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음운 변화의 표기의 문제

이처럼 개정 시안에서는 '독립문'이 '동님문'으로 발음되는 예에서 보듯이,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표음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의 올바른 발음을 알려 줄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개정 시안에서는 비음화 현상을 보이는 '신문로'를 '신문노'(Sinmunno)로 표기하고 있으며, 구개음화가 되는 '해돋이'는 haedoji로 표기하고, 설측음화 또는 유음화 현상에 해당하는 '신라'는 Silla로 적고 있다. 만약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를 그 변화의 결과대로 적지 않고 음소 표기만으로 적게 되면 구개음화를 일으키는 '말이'와 그렇지 않은 '마디'는 둘 다 똑

같이 *madi*로 표기되어 구분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음소 표기로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표기해야 '말이'와 '마디'가 *maji*와 *madi*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단어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개정 시안은 음운변화의 결과를 어떤 현상까지 포함시켜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개정 시안은 '팔당'이 '팔땅'으로 소리나는 이른바 경음화 현상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Paldang*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국어의 경음화 현상은 좀 불규칙하여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에 반영할 경우 혼란스러워질 우려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더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우리가 아는 한, 한국어에서는 '국밥'은 '국빡', '설향'은 '설펡', '밥상'은 '밥쌍', '안방'은 '안뎡', '눈동자'는 '눈뎡자' 등과 같이 규칙적으로 경음화 현상을 보이는 단어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를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경음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곤충인 '잠자리'와 잠자는 곳이라는 의미의 '잠자리'는 개정 시안에 의해 동일하게 *jamjari*로 표기되므로 의미상 구분이 되지 않는다. 후자의 '잠자리'는 경음화가 일어나 '잠짜리'로 소리나므로 *jamjjari*로 적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음화를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어의 발음을 외국인들에게 잘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영어 사용자의 편의 문제

이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은 컴퓨터 기본 자판에 없는 반달표와 사용하기에 불편한 어긋점과 같은 구별부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환영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대신 '어'와 '으'를 *eo*와 *eu*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또 다른 측면에서 외국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토론자가 재직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미국인 교수에게 개정 관련 자료의 하나인 *Geojedo*와 *Jeolla*를 읽어 보도록 하였을 때 그는 '거제도'와 '전라'로 발음하지 않고 '지어제도'와 '제올라'로 읽었다.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 과연 내국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을 위한 것인가의 물음에 대해, 표기법은 가능한 한,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할 때, 개정시안은 이에 대한 설득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비록 로마자 표기가 영문자 표기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

나 최근 초등학교에서 영어학습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러시아나 영어를 공용어로 정하자는 일본의 21세기 구상을 볼 때 도로 표지판이나 행정 구역 표기에 있어서도 점차 영어 중심 표기법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등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어의 ‘어’와 ‘으’는 로마자의 다른 모음에 대응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으므로 eo와 eu로 표기하도록 하는 이번의 개정 시안은 홍보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행정 구역 단위 표기의 문제

개정 시안에 따르면 ‘제주’의 표기는 Cheju가 아닌 Jeju로 바뀌게 된다. 현행 표기법 대로라면 1984년 공포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 2장의 언급(본 고 3장 1절을 참고할 것)에 따라 ‘제주’는 Cheju로 ‘북제주군’은 Pukcheju-gun으로, ‘남제주군’은 Namjeju-gun으로, ‘신제주’는 Shinjeju로 표기하여 사용해 왔어야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를 홍보하는 책자나 안내하는 도로 표지판 및 최형규(1989)가 펴낸 전국도로관광지도란 책에서는 현행 표기법에 따라 ‘남제주군’과 ‘신제주’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각각 Namcheju-gun과 Shincheju로 표기해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편으로는 현행 표기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현행 표기법을 충실히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Cheju를 ‘제주’ 관련 단어들 표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표기로 인식하여, ‘제주’를 적을 때나 ‘북제주군’, ‘남제주군’, ‘신제주’를 표기할 때 모두 Jeju가 아닌 Cheju가 포함된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편리하게 오래 사용해 온 행정 구역 단위 명칭들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좋지 않을까 한다.

특히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해마다 더 많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으므로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의 인식에 맞게 Jeju가 아닌 Cheju로 사용해야 별다른 혼란이 없을 것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제주’의 ‘ㅈ’을 무성음 ‘ch’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들의 편의도 얼마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 ‘제주’를 개정 시안에 따라 Jeju로 표기하게 되면 ‘지주’나 ‘지유’, 또는 ‘예주’나 ‘예유’로 발음하는 외국인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Cheju를 Jeju로 바꾸게 되면 인터넷 도메인 설정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

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주소는 www.cheju.ac.kr, 인데 반해 제주 산업 정보대학교 홈페이지 주소는 www.jeu.ac.kr. 이기 때문에 Cheju를 jeju로 바꾸는 데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V.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이번에 곧 바뀌게 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하여 로마자 표기의 근본 원칙을 알아보고, 현행 표기법과 비교하여 새 표기법의 내용을 검토해 본 후, 개정될 새 표기법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은 전반적으로 현행 표기법이 외국인 중심인데 비해서 내국인 위주로 바뀌면서 특히,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어긋점과 반달표와 같은 특수 부호를 없앴으로써 읽기 쉽게 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 점은 환영받을만 하다. 그러나 1음운 1 기호 표기 원칙이 때에 따라 지켜지지 않은 점, 음운 변화의 결과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경우에 경음화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영어 사용인들이 읽기에 아직도 불편하다는 점, Cheju처럼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행정 구역 단위들은 예외를 두자는 점등이 최종적인 표기법이 확정될 때까지 고려해 볼 문제라 할 수 있다. 현 개정 시안의 수준에서 내국인 중심의 표기를 약간 줄이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조금 더 배려하는 표기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 표기법이 확정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내외국인들에게 홍보가 뒤따라야 하며, 초중등의 교육 과정에도 반영하여 표기법 교육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충배, 1979. “우리말 로마자 표기 문제”, 언어 제3권 제2호, 한국언어학회:71-85.
-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199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관련 자료.
- 문화관광부, 2000. 로마자 표기법 왜 개정해야 하나?
-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199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청회(서울) 자료.
- _____, 200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토론회(대구) 자료.
- _____, 200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토론회(광주) 자료.
- _____, 200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토론회(제주) 자료.
- 배양서, 1979. “외국어의 한글화 및 국어의 로마자 시안 비판”, 영어교육 제17호.
- 최형규, 1989. 「전국도로 관광지도」, 서울:성지문화사.
- 정 국, 1999. 「영어음운론」(신영어학 총서 6), 서울:한국문화사.
- 제주대학교 작문교재 편찬위원회, 1997. 「글쓰기의 방법과 실제」, 제주:제주대학교 출판부.
- McCune, G. M. & E. O. Reischauer., 1939.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9:1-55.

Abstract

A Phonological Study on the
New Romanization of Korean

Chong-Hoon Kim

This paper aims to examine a new Romanization of Korean, which will be used from this year, 2000. In this study, we shall look at some fundamental principles of Romanizing the Korean Language and compare the present Romanization System with the new Romanization system, and argue against the new system from the phonological point of view.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present and new system of Romanization of Korean are that the new Romanization uses 'eo', instead of 'ō', for Korean vowel 'ㅜ' and uses 'eu', replacing 'ü' for a vowel 'ㅡ'. The Korean consonants 'ㅋ, ㅌ, ㅍ, ㅊ' will be newly romanized into k, t, p, ch, not k', t', p', ch'. The initials 'ㄱ, ㄷ, ㅂ, ㅈ' will be changed into 'g, d, b, j', instead of 'k, t, p, ch'. For example, Sōgwip'o and Cheju-do will be represented as Seogwipo and Jeju-do.

This type of new Romanization of Korean, however, is not a friendly system for foreigners, especially not for English-speaking people. Few foreigners are likely to accept the new change of Cheju into Jeju, for they feel the Korean 'ㄱ, ㄷ, ㅂ, ㅈ' like the voiceless stops, k, t, p, ch.

Therefore, I will give some comments on the new Romanization of Korean and give my opinions on it from the phonological viewpoint in this paper.